

상박초간 『범물류형』의 기초 연구*

— 유일자를 향한 중국 고대 지식인의 물음과 해답

이 승 루**

[국문초록]

『범물류형』은 세계의 근원적 실재로 ‘일’(一)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일’은 천지만물의 존재·운동 및 자연계·종교계·인간계의 모든 현상과 질서의 안정·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적 실재로 규정된다. ‘일’은 전지전능한 성격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군주에게는 ‘일’을 잘 살피며 획득해야 함은 물론, 영원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일’을 체득하게 되면 천지만물을 얻어 천하를 통일하고, 통일한 천하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은 물론, 하늘과 땅의 모범이 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일’에 대한 정치적 레토릭과 활용을 통해 한 나라는 물론 천하 경영의 정치적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 논문은 2011년 1월 26일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 개최한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단국대학교 사학과 강사

주제어: 상박초간, 범물류형, 도가, 유가, 일, 도

Chu Bamboo Slips Collected by Shanghai Museum, Fan Wu Liu Xing, Early Taoism, Confucianism, One, dao

1. 머리말

모든 사물의 유일한 존재나 모든 일의 유일한 근본-본고에서는 이것을 통칭해 ‘일’(一)이라고 한다. 을 탐구함으로써 당면하는 일에 어떤 오류도 불안도 없이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동서양의 철학사나 종교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¹⁾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유일한 존재에 대한 신앙이나 관념이 있었다. 우주의 지배자이자 그 의지에 의해 모든 미래가 결정된다고 관념된 은대(殷代)의 상제(上帝) 신앙, 모든 사물을 낳는 근원적 존재이자 역성(易姓)혁명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존재로 관념된 서주(西周)시대의 천명(天命) 사상 등이 그것이다.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가 되면, 공자(孔子)가 “나의 도는 하나로 일 관돼 있다”[吾道一以貫之]라고 해 모든 도덕의 통일을 말하고, 묵가(墨家)가 ‘하늘의 의지’[天志]를 말하고, 맹자(孟子)가 ‘성선(性善)을 말하고, 『노자』(老子)와 『장자』(莊子)가 만물의 궁극적 근원적 실재로 ‘도’(道)나 ‘일’을 말하고, 법가(法家)가 ‘법’을 말하듯이, 모든 사물의 유일한 존재나 모든 일의 유일한 근본인 ‘일’에 관한 논의는 더욱 확대·심화된다.²⁾ 이것은 마왕퇴박서(馬王堆帛書) 『도원』(道原), 광점초간(郭店楚簡) 『태일생수』(太一生水), 상박초간 『항선』(恒先) 같은 지하에서 출토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일’ 철학은 개인이나 학파의 철학적 성격을 결정짓는 본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고대 철학의 탄생 초기부터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다. 한대(漢代) 이후가 되면 논의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일’과 관련해 철학적으로 중요한 전국시대 문헌이 발견됐다. 2008년 12월에 출판된 『상해박물관장전국초죽서』(上海博物館藏

1) 赤塚忠(1987), 「中國古代の思想家たちの「一」の探究」, 『中國古代思想史研究』, 赤塚忠著作集 제2권, 東京: 研文社, p. 427 참조.

2) 물론 이것을 본고에서 ‘일’이라고 통칭한다 하더라도,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戰國楚竹書, 이하 상박초간이라고 한다) 제7권에 수록돼 있는 『범물류형』(凡物流形)이 그것이다. 이 문헌은 유일자인 ‘일’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논의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헌은 『노자』·『장자』·『관자』(管子) 4편 등에 보이는 선진시대 도가(道家)철학과 유사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철학의 본질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측면도 있다.

본고는 『범물류형』의 철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고찰하는 일환으로, 먼저 『범물류형』의 원문을 제시한 뒤 내용을 분석하고 철학적 특징을 추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³⁾ 이것은 향후 『범물류형』의 철학을 도가를 비롯한 제자백가 철학과 비교·고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그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범물류형』이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돼 왔고 그 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3) 圖版·釋文·注釋은 馬承源 주편(200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pp. 75-132, pp. 219-300 참조. 『범물류형』의 편철은 석문이 발표된 직후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研究生讀書會(鄔可晶 집필)(2008), 『《上博(七)·凡物流形》重編釋文』(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웹페이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2008. 12. 31. 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581/나중에 劉釗 주편(2010),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3, 復旦大學出版社, pp. 274-283에 수정 게재)에 의해 상당 부분 수정됐다. 그 뒤 독서회에서 복원한 편철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李銳·顧史考·王中江이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함으로써 완전히 복원되게 됐다. 李銳(2009), 『《凡物流形》釋讀節記(再讀)(重訂版)』,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2000, 2009. 1. 3. <http://www.confucius2000.com/admin/list.asp?id=3885>; 顧史考(2009), 『上博七《凡物流形》簡序及韻讀小補』, 簡帛 웹페이지, 2009. 2. 23.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994; 王中江(2009b), 『《凡物流形》編聯新見』, 簡帛 웹페이지, 簡帛, 2009. 3. 3.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998 참조. 『범물류형』 각 장의 요점에 관해서는 李承律(2011), 『出土資料の思想編年をめぐる諸問題-上博楚簡『凡物流形』を中心にして-』, 谷中信一 편, 『出土資料と漢字文化圏』, 東京: 汲古書院, pp. 79-82에서 이미 논급했다. 다만 논의의 필요상 약간 중복되더라도 다시 언급한 부분이 있다. 참고로 『범물류형』을 인용할 때는 죽간의 문자를 해서체로 釋讀해 제시했다. 단 죽간의 문자는 필자가 도판을 직접 보고 선행 연구를 참조하면서 검토·확정했기 때문에 馬承源 주편(2008)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2. 선행 연구의 문제점

『범물류형』의 철학사상과 관련해서는 정리자인 차오진옌(曹錦炎)이 자료적 성격에 대해 『초사』(楚辭) 「천문」(天問)편의 자매편(姊妹篇) 내지는 초사류(楚辭類) 작품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⁴⁾ 그러나 리루이(李銳)·왕중장(王中江)·차오핑(曹峰)은 초사류 작품 설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공통된 이유로는 「천문」편과 『범물류형』이 문체나 형식면에서 다르다는 점을 든다.⁵⁾

특히 왕중장은 『범물류형』을 황로학(黃老學)의 작품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 근거로 『범물류형』이 우주의 생성이나 자연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 ‘일’이라는 범주를 둘러싸고 우주생성론·자연철학·정치원리를 세우고 있는 점을 들면서, 그런 ‘일’이 바로 황로학의 핵심 범주라고 한다. 또 『범물류형』에서 말하는 ‘집일’(執一)·‘수일’(守一)·‘집도’(執道)는 황로학에서 최고 통치자인 성인(聖人)을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것은 유가(儒家)가 주로 ‘덕’(德)으로 성인을 가르치고, 법가가 주로 ‘법’으로 명주(明主)를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는 점도 든다.

『범물류형』의 연원과 관련해서는, 친화린(秦樺林)은 『주역』(周易) 「건괘·단전」(乾卦·彖傳)을 중요한 사상적 연원으로 보는 반면, 왕중장과 차오핑은 황로사상을 그것으로 본다. 특히 차오핑은 마왕퇴백서 『십문』(十問)과 가깝지만, 『관자』 4편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자원이고 『노자』는 『관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한다.⁶⁾

4) 馬承源 주편(2008), p. 222.

5) 李銳(2008), 「《凡物流形》釋文新編(稿)」,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2000, 2008. 12. 31. <http://www.confucius2000.com/qhjb/fwlx1.htm>; 王中江(2009)a, 「《凡物流形》의宇宙觀、自然觀和政治哲學-圍繞“一”而展開的探究并兼及學派歸屬」, 『哲學研究』 2009-6, 中國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 p. 51, p. 58; 曹峰(2010), 「上博楚簡《凡物流形》的文體結構與思想特徵」,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1, 《清華大學學報》編輯部, p. 79.

6) 秦樺林(2009), 「從楚簡《凡物流形》看《彖傳》的成書年代」, 『周易研究』 2009-5,

사상적 특징과 소속학파에 관해서는 ① 학파를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李銳), ② 유가사상을 핵심으로 한다는 설(秦樺林), ③ 황로사상을 본질로 한다는 설(王中江·曹峰)이 있다. 리루이는 『범물류형』이 도가 계통의 문헌들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선진시기에 이른바 도가라는 학파가 반드시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헌을 도가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반면 친화린은 『범물류형』의 사상에는 도가적인 색채도 있지만, 『주역』 「건괘·단진」 및 『예기』(禮記) 「대학」편·「중용」편과의 관련을 근거로 그 핵심 사상은 유가라고 한다. 그러나 왕중장은 『범물류형』이 황로사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면서, 넓은 의미에서는 도가 작품이지만 구체적으로는 황로학의 작품이라고 한다. 다만 『범물류형』에서 ‘일’을 법률 규범과 연계시키지 않는 점은 기존의 황로학과 구별된다고 한다. 차오핑도 『관자』 4편과의 관련을 근거로 그 본질은 황로사상이라고 한다.⁷⁾

이상 선행 연구에 의해 『범물류형』의 실체가 여러 각도에서 밝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 또한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① 문자 판정과 원문 해석의 문제, ② 『범물류형』의 전체 구성의 문제, ③ 『초사』 「천문」편과의 관련 문제, ④ 『주역』·『예기』 등 유가 문헌과의 관련 문제, ⑤ 『노자』·『장자』·『관자』 4편 등 도가 문헌과의 관련 문제, ⑥ 황로철학과 그 학파와의 관련 문제 등이다. 『범물류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문제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증하고 고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범물류형』의 철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이 문헌의 핵심 철학인 ‘일’과 관련된 문제를 중국 고대 철학사 전체에서 조명해야 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가장 기초적이고 최우선적인 작업으

山東大學中國周易學會, pp. 26-30; 曹峰(2010), p. 79, p. 81, p. 82.

7) 李銳(2008); 秦樺林(2009), pp. 29-30; 王中江(2009)a, pp. 54-57; 王中江(2010), 「《凡物流形》的“貴君”、“貴心”和“貴一”」,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1, 《清華大學學報》編輯部, p. 89; 曹峰(2010), p. 82.

로, 『범물류형』의 전체 내용을 장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철학적 특징을 구명하기로 한다.

3. 『범물류형』 제1장(제1~2호간)

제1장은 나머지 8개 장과 달리 ‘문지왈’(聞之曰)로 시작되지 않는 점에 특징이 있다. ‘문지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견해를 인용해 독자에게 전달할 때 쓰는 표현 방식의 하나다. 그렇다면 ‘문지왈’이 없는 제1장은 『범물류형』의 저자가 직접 쓴 문장일 가능성이 크다.

- ① 모든 사물은 (처음에는 임신 1개월 된 태아와 같은) 형상을 갖추게 되는데, 무엇을 얻어 그렇게 되는가? ② 형상이 갖춰지면 몸을 이루게 되는데, 무엇을 얻어 죽지 않는가? ③ 이미 몸을 이루고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을 보고 우는가? ④ 이미 줄기[本]가 되고 이미 뿌리[根]가 났는데, (시간적으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⑤ 음양의 위치는 무엇을 얻어 안정돼 있는가? ⑥ 물과 불의 조화는 무엇을 얻어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가?⁸⁾

이 장에서는 만물의 존재와 운동 및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묻고 있다. ①은 임신 1개월 된 태아와 같은 만물의 형상[形]의 형성, ②는 그런 형상에서 몸체[體]로의 구성, ③은 ‘올다’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만물의

8) 『凡物流形』 제1~2호간. “① 凡物流形, 奚得而成. ② 流形成體, 奚得而不死. ③ 既成既生, 奚顧而鳴. ④ 既本既根, 奚後之奚先. ⑤ 陰陽之居<居>, 奚得而固. ⑥ 水火之和, 奚得而不訖.” ‘顧’는 ‘돌아보다’로 해석하면 문맥이 어색해진다. 여기서는 『呂氏春秋』 「慎勢」편 “行者不顧”의 注에 “顧, 視.”라고 하는 것에 의거해 ‘보다’로 해석했다. ‘本’은 본의대로 해석하면 ‘根’과 동의어가 되기 때문에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廣雅』 「釋木」의 “本, 幹也.”에 의거해 ‘줄기’로 해석했다. ‘<>’는 이 부호 앞의 문자가 이 부호 안의 문자의 誤字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부호다.

생명 활동, ④는 식물의 줄기와 뿌리의 선후 관계, ⑤는 음양의 시공간적 가치적 의미에서의 위치의 안정, ⑥은 물과 불의 조화와 유지에 관한 것이다. ①·②·③에서 말하는 만물의 존재와 운동 및 각종 현상은 ‘유형’(流形) → ‘성체’(成體) → ‘생’(生) → ‘불사’(不死) → ‘명’(鳴)으로 도식화 할 수 있다. ⑤와 ⑥에서 말하는 음양(陰陽)과 수화(水火)는 자연계를 구성하는 2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 의하면 제1장의 내용은 만물의 존재와 운동 및 자연계의 질서의 안정·유지 같은 현상을 현상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적 실재에 관한 물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①에 보이는 ‘범물류형’(凡物流形)이라는 표현이다. 친화린은 이 표현이 『주역』 「건괘·단전」의 ‘품물류형’(品物流形)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두 문헌 간의 영향 관계는 물론, 『범물류형』의 핵심 철학을 유가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로 삼고 있다.⁹⁾ 이 주장은 타당할까? 이 두 구절을 보면 ‘범물’과 ‘품물’은 표현은 다르지만, 둘 다 ‘만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의미는 같다. 또 둘 다 ‘유형’¹⁰⁾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영향 관계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철학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역』 「건괘·단전」은 만물의 존재와 운동의 원인에 대해 건(乾)과 곤(坤)이라는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¹¹⁾ 그에 반해 『범물류형』은 일원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완전히 다르다. 이것이 이 두 문헌의 영향 관계는 물론 『범물류형』의 핵심 철학을 유가라고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다.

9) 秦樺林(2009), pp. 26-30.

10) ‘流形’은 마왕퇴백서 『胎產書』(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편(1985), 『馬王堆漢墓帛書[肆]』, 北京: 文物出版社, p. 136) “故人之產毀, ……一月名曰留刑.”의 ‘留刑’, 『抱朴子』 「塞難」 편 “故授氣流形者父母也.”의 ‘流形’, 『諸病源候論』 “懷娠一月, 名曰始形.”의 ‘始形’, 『備急千金要方』 “妊娠一月, 名始胚.”의 ‘始胚’와 같은 개념으로, ‘임신 1개월 된 태아의 생성’을 의미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大西克也(2010), 『試說“流形”原意』,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편, 『出土文獻』 1, 上海: 中西書局, pp. 182-184 참조.

11) 이 점에 관해서는 張岱年(2005), 『中國哲學大綱』,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p. 53 참조.

4. 『범물류형』 제2장(제2~8호간)

제2장부터는 모두 ‘문지왈’로 시작된다. 이것은 곧 ‘문지왈’ 이하의 내용은 저자의 독창적인 견해가 아니라 전문(傳聞)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① 사람은 (처음에는 임신 1개월 된 태아와 같은) 형상을 갖추게 되는데, 무엇을 얻어서 태어나는가? ② 형상이 갖추지면 몸을 이루게 되는데, 무엇을 잃어서 죽는가? ③ (뉘를) 얻어서 (몸을) 이루기는 했지만, 그것을 지배하는 존재의 실정은 아직 모른다. ④ 하늘과 땅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끝을 성립시키는 존재다. ⑤ 하늘은 다섯 종류의 척도[分·寸·尺·丈·引]를 내렸는데, 나는 무엇으로(무엇을 기준으로) 가로로 하고 무엇으로 세로로 하면 되는가? ⑥ 다섯 종류의 기(氣)는 함께 왔는데, 나는 무엇으로 구별하고 무엇으로 같게 하는가? ⑦ 다섯 종류의 정령(政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무엇이 그것을 공평하게 하는가? ⑧ 이 세계는 아홉 영역으로 구획돼 있고 각각 정치를 도모하고 있는데, 누가 분봉(分封)했는가? ⑨ 나는 이미 나이 들어 늙었는데 누가 봉양해 주는가? ⑩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왜 신명(神明)한가? ⑪ 뼈와 살은 이미 (씩어서) 없어졌지만, 귀신의 예지(叡智)는 더욱 밝다. 귀신은 (육체를) 떠나 어디로 가는가? ⑫ 누가 (귀신이 있는) 그 세계를 알고 있는가? ⑬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왔는데 나는 왜 그것을 섬기는가? ⑭ 뼈와 살은 이미 (씩어서) 없어지고 육체는 보이지 않는데, 나는 어디에서 음식을 대접해야 하는가? ⑮ 귀신이 찾아오는 것은 한도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⑯ 窊祭(窊祭)? ⑰ 나는 어떻게 하면 (귀신에게) 음식을 올릴 수 있을까? ⑱ 하늘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핵심으로 삼아야 하는가? ⑲ 나는 백성들의 화합을 실현시키고 싶은데,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 ⑳ 하늘의 밝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㉑ 귀신의 신묘한 능력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㉒ 선왕의 지혜는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는가?”¹²⁾

①에서는 인류 탄생의 원인에 대해 묻고 있고, ②에서는 인류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묻고 있다. ③은 하늘이 내린 ‘오도’(五度)의 이용과 기준, ④는 자연계에서 ‘오기’(五氣)의 이용 방법, ⑤는 인간 정치세계에서 ‘오언’(五言)의 공평성, ⑥은 인간세계에서 9개 정치 영역의 원천, ⑦은 노쇠 현상에 대한 불안, ⑧~⑮는 귀신의 존재와 정체 및 제사의 의의와 방법, ⑯은 천도에 대한 순응, ⑰은 백성의 화합의 문제에 대해 그 원인이나 존재이유나 방법 등을 묻고 있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다. 하나는 『범물류형』의 저자가 현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체로 ⑱에서 ⑳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들고 있는 점이다. 온 세상을 비추는 하늘의 밝은 빛을 획득하는 방법[恒常不變이나 公平無私의 상징], 귀신의 신묘한 능력을 이용하는 방법, 선왕의 지혜를 갖추는 방법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㉑와 ㉒ 부분이다. 먼저 ㉑에는 ‘좌우지정’(左右之情)이라는 개념이 있다. ‘좌우’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배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¹³⁾ 왜냐 하면 ①·② 및 ㉑의 전반부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원인에 관해 묻은 뒤, 그런 생명 현상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12) 『凡物流形』 제2~8호간. “聞之曰, ① 民人流形, 奚得而生. ② 流形成體, 奚失而死. ③ 有得而成, 未知左右之情. ④ 天地立終立始. ⑤ 天降五度, 吾奚衡奚縱. ⑥ 五氣並至, 吾奚異奚同. ⑦ 五言在人, 孰爲之公. ⑧ 九有出謀, 孰爲之封. ⑨ 吾既長而又老, 孰爲薦奉. ⑩ 鬼生於人, 奚故神明. ⑪ 骨肉之既靡, 其智愈彰, 其訣_奚適, ⑫ 孰知其疆. ⑬ 鬼生於人, 吾奚故事之. ⑭ 骨肉之既靡, 身體不見, 吾奚自食之. ⑮ 其來_亡度, 吾奚待之. ⑯ 至(?)祭(?)奚逐. ⑰ 吾如之何使飽. ⑱ 順天之道, 吾奚以爲首. ⑲ 吾欲得百姓之和, 吾奚事之. ⑳ 旻天之明奚得. ㉑ 鬼之神_奚食. ㉒ 先王之智_奚備.”

13) 廖名春과 吳國源도 ‘지배하다’라는 쪽으로 해석한다. 다만 그 분석 내용 중에는 잘못된 부분도 있다. 廖名春(2008), 『《凡物流形》校讀零箚(一)』,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2000, 2008. 12. 31. <http://www.confucius2000.com/qhjb/fwlx3.htm>; 吳國源(2009), 『《上博(七)凡物流形》零釋』,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2000, 2009. 1. 1. <http://www.confucius2000.com/qhjb/fwlx5.htm>.

다. ‘정’(情)은 여기서는 실정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㉔는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과 같은 생명 현상을 지배하는 그 실정은 아직 모른다’라는 의미가 된다. 아직 모른다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해답은 제4장 이하에 준비돼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㉕에서는 천지를 만물의 시작과 끝을 성립시키는 근본으로 보고 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란 만물의 흥망성쇠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범물류형』에서는 천지를 가장 근원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제2장 이하의 전문(傳聞)을 모아놓은 문장이라는 특성상, ㉕의 문장은 제4장 이하에서 말하는 궁극적 근원적 존재로서의 ‘일’이나 ‘도’와 논리적으로 충돌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㉕는 아마도 만물의 흥망성쇠의 근본인 천지보다 ‘일’이나 ‘도’가 더 근원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5. 『범물류형』 제3장(제8~11 · 12A+13B · 14호간)

제3장은 ‘문’(問)자를 중심으로 5가지 물음으로 구성돼 있는 전반부와 12가지 물음으로 구성돼 있는 후반부로 구분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㉔ 높은 곳을 추구하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먼 곳에 도달하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㉕ 열 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그것이 처음 날 때는 싹에서 시작된다. 발로 천리를 가려면 반드시 한 치에서 시작된다. ① 태양에 햇무리가 있는 것은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가? ② 달에 달무리가 있는 것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③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무엇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④ 태양은 처음 뜰 때는 크기가 큰데 왜 뜨겁지 않은가? ⑤ 정오가 되면 반대로 작아지는데 왜 밝고 뜨거운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⑥ 하늘은 누가 높게 만들었는가? ⑦ 땅은 누가 멀리까지 뻗게 했는가? ⑧ 누가 하늘을

만들었는가? ⑨ 누가 땅을 만들었는가? ⑩ 누가 우레의 신(?)을 만들었는가? ⑪ 누가 상제(上帝?)를 만들었는가? ⑫ 땅은 무엇을 얻어서 편평한가? ⑬ 물은 무엇을 얻어서 맑은가? ⑭ 풀과 나무는 무엇을 얻어서 나는가? ⑮ 짐승은 무엇을 얻어서 우는가? ⑯ 무릇 비가 내리는 것은 누가 침을 뱉고 땀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 ⑰ 무릇 바람이 부는 것은 누가 숨을 내쉬고 들이마셔서 내뿜는 것인가?”¹⁴⁾

전반부에서는 ①은 태양의 햇무리, ②는 달의 달무리, ③은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 현상, ④와 ⑤는 태양의 크기와 열의 세기와의 관계와 같이, 자연현상에 관해 그 원인을 묻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후반부에서는 ⑥·⑦·⑫·⑬·⑮는 천지와 물과 동물의 고유한 성질, ⑧~⑪은 하늘·땅·우레의 신(?)·상제(?)의 탄생, ⑭·⑯·⑰은 초목의 생명과 비바람의 발생에 관해, 그것을 존재·운동하게 하거나 현상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적 실재를 묻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①은 유사한 표현이 현행본 『예기』 『중용』편에 보이고, ②는 광점초간 『노자』 갑본 제25~27호간(현행본 제64장)에 보인다.¹⁵⁾ 그런데 ①·②와 같은 문장은 『예기』나 『노자』가 창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민

14) 『凡物流形』 제8~11·12A+13B·14호간. “聞之曰, ① 逐高從卑, 至遠從邇. ② 十圍之木, 其始生, 如櫟. 足將至千里, 必從寸始. ③ ① 日之有珥, 將何聽. ② 月之有暈, 將何征. ③ 水之東流, 將何盈. ④ 日之始出, 何故大而不炎. ⑤ 其人<日>中, 奚故小種(?)嗥暑. 問 ⑥ 天孰高歟, ⑦ 地孰遠歟. ⑧ 孰爲天, ⑨ 孰爲地, ⑩ 孰爲雷神, ⑪ 孰爲帝. ⑫ 土奚得而平. ⑬ 水奚得而清. ⑭ 草木奚得而生. ⑮ 禽獸奚得而鳴. ⑯ 夫雨之至, 孰唾津之. ⑰ 夫風之至, 孰噓吸而進之.”

15) 『禮記』 권52 「中庸」. “子曰, 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君子之道, 辟如行遠必自邇, 辟如登高必自卑.”; 郭店楚簡 『老子』 甲本 제25~27호간. “其安也易持也, 其未兆也易謀也, 其脆也易判也, 其微也易散也. 爲之於其亡有也, 治之於其未亂. 合[抱]之木, 作於[毫]末, 九層之臺, 甲<作>[於]纍土, 百仞之高, 始於[足]下.” 광점초간을 인용할 때는 荊門市博物館 편(1998),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를, 마왕퇴백서를 인용할 때는 國家文物局古文獻研究室 편(1980), 『馬王堆漢墓帛書[壹]』, 北京: 文物出版社를 저본으로 했다. 아울러 광점초간 『노자』의 缺文은 마왕퇴백서 갑본에 의거해 보충했다. 갑본에 결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본에 의거해, 일본에 결문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본에 의거해 보충했다. 이하 동일.

간에 전해지고 있던 격언류의 문장을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동일한 격언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헌에 따라 의도하는 바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㉔의 경우 『중용』 편에서는 군자의 도를 궁도에 비유하면서, 화살을 과녁의 중앙에 맞히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곧 도를 행하다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경우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을 뜻한다. 밑줄 친 부분에서 ‘가까운 곳’과 ‘낮은 곳’이란 곧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㉕의 경우 『노자』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스릴 때는 그 일의 싹이 막 트거나 아직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범물류형』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문헌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아마도 궁극적 근원적 실재인 ‘일’에서 ‘다’(多)로서의 만물이 생성돼 나오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비유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낮은 곳’, ‘가까운 곳’, ‘싹’, ‘한 치’는 ‘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고, ‘높은 곳’, ‘먼 곳’, ‘열 아름의 나무’, ‘천리’는 만물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물류형』이 유사한 격언을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기』나 『노자』와 그 의도하는 바는 다르다고 해야 한다. 이것이 『범물류형』의 핵심 철학을 유가라고 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며, 『노자』 철학과도 다른 점이다.

6. 『범물류형』 제4장(제14·16·26호간)

제4장부터는 제1~3장 같은 의문문 형식의 문장은 거의 사라지고 서술 형식으로 바뀐다. 제4장은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전개해 온 궁극적 근원적 실재에 관한 물음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는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도를 명찰하면 앓은 채로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耑(耑?)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아도 온 세상의 일을 먼저 알 수 있으며, 천리 밖의 일도 모두 들을 수 있고, 백리 밖의 것도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아도 국가의 안위·존망·도적의 발생을 미리 알 수 있다.”¹⁶⁾

여기서는 도를 명찰하면 개별적인 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한 마디로 말하면 ‘도’에 대한 명찰을 통한 예지(豫知) 능력과 전지(全知) 능력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철학은 『노자』[관점본에는 없음]나 『여씨춘추』(呂氏春秋) 「군수」(君守)편과 「선기」(先己)편 등에도 보인다.¹⁷⁾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노자』와 「군수」편은 서로 유사하지만 「선기」편은 다르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전자의 경우는 외부를 향한 객관적인 지식을 비판하고 내부를 향한 주체적인 앎을 긍정하듯이 도가적인 지식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유가적인 수양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범물류형』은 제4장에서는 지식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수양론에 중점을 두고 있다.¹⁸⁾ 그렇다면 『범물류형』의 경우는 지식론과 수양론을 모두 포섭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범물류형』은 이들 문헌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16) 『凡物流形』 제14·16·26호간. “聞之曰, 察道, 坐不下席, 耑(?)覺(?), 箸(?)不與事, 之<先>知四海, 至聽千里, 達見百里. 是故聖人居<尻>於其所, 邦家之危安存亡, 賊盜之作, 可之<先>知.”

17) 馬王堆帛書『老子』甲本 제20~21행(현행본 제47장). “不出於戶, 以知天下. 不窺於牖, 以知天道. 其出也彌遠, 其[知]彌少. 是以聖人不行而知, 不見而明, 弗爲而成.”; 『呂氏春秋』 권3 「先己」. “丘聞之, 得之於身者, 得之人, 失之於身者, 失之人. 不出於門戶, 而天下治者, 其惟知反於己身者乎.”; 同 권17 「君守」. “身以盛心, 心以盛智. 智乎深藏, 而實莫得窺乎. ……故曰, 不出於戶而知天下, 不窺於牖而知天道. 其出彌遠者, 其知彌少.”

18) 제7장의 “是故察道, 所以修身而治邦家.”와 제8장의 “毋遠求度, 於身稽之.” 참조.

그리고 이 장에서는 이런 능력을 획득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성인’을 든다. ‘예지’[先知]의 구체적인 예로 국가의 안위존망과 도적의 흥기를 드는 것에 의하면, 이 성인은 현실 정치에서는 군주를 의미한다. 또 ‘도를 명찰하는 것’은 ‘일을 명찰하는 것’과 함께 주체적인 앎, 즉 ‘진지’(眞知)를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제2장에서 물음을 던진 세 가지 요체에 대한 해답의 하나이기도 하다.

7. 『범물류형』 제5장(제26·18·28·15호간)

제5장은 ‘왈’(曰)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된다. 전반부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후반부에서는 ‘일’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마음이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 만약 마음이 마음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을 ‘작은 깨달음’[小徹]이라고 한다. 무엇을 작은 깨달음이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명찰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들이 아무런 동요 없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말을 적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과연 뉘가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무릇 이것을 ‘작은 성취’[小成]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백성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군주고, 군주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일’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위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못에 가득 차게 된다. 앉아서 이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 천리에 이르고, 일어서서 이것을 사용하면 온 세상에 미치게 된다.”¹⁹⁾

전반부에서는 마음이 마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저자가 이것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철’(小徹)과 ‘소성’(小成)²⁰⁾이라는 두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음이 마음을 이기는 단계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는 위의 문장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명찰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듯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을 명찰이라고 생각하는 주체는 원저자가 아니라 ‘타인’[人]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생 아무런 동요 없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상태를 “그렇게 해서 과연 말을 적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과연 뉘가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마음을 맑게 하는 것’과 ‘평생 아무런 동요 없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단계는 『범물류형』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범물류형』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후반부에 기술돼 있다. 후반부에서는 백성은 오직 ‘군주’를, 군주는 오직 ‘마음’을, 마음은 오직 ‘일’을 귀하게 여긴다고 해 ‘귀’(貴)의 대상을 3단계의 수직적 관계로 파악한 뒤, ‘일’을 최고의 존재이자 최고의 가치로 자리 매기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용하면 전 세계의 모든 일에 전능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범물류형』은 『관자』 4편처럼 ‘도’보다도 ‘마음의 자주성’을 더 강조하거나²¹⁾ ‘백심’(白心)²²⁾

19) 『凡物流形』 제26·18·28·15호간. “聞之曰, 心不勝心, 大亂乃作. 心如能勝心, 是謂小徹. 奚謂小徹. 人白爲察. 奚以知其白. 終身自若. 能寡言乎, 能一乎, 夫此之謂小成. 曰, 百姓之所貴唯君, 君之所貴唯心, 心之所貴唯一. 得而解之, 上濱於天, 下蟠於淵. 坐而思之, 至於千里, 起而用之, 申於四海.”

20) ‘小成’은 『莊子』 『齊物論』편의 “道隱於小成, 言隱於榮華.”라는 문장에 보인다. 이 문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21) 이 점에 관해서는 李承律(2011), pp. 84-85 참조.

22) ‘白心’은 『관자』 4편에서 편명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자』 4편의 본문에

과 ‘자약’(自若)을 강조하는 철학의 불안전성을 비판하고, ‘일’을 강조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해야 한다.

8. 『범물류형』 제6장(제15·24·25호간)

제6장의 전반부는 내용이 매우 난해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정미함이 극에 달하면 지적인 작용이 일어난다. 지적인 작용을 명찰하면 신묘한 작용이 생긴다. 신묘한 작용을 명찰하면 통하게 된다. 통하는 것을 명찰하면 [察通(?)]而僉(?), 察僉(?) 다다르게 된다. 다다르는 것을 명찰하면 되돌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옛 것은 새 것이 되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사람이 되며, 물은 하늘로 되돌아간다. 이처럼 만물이 죽지 않는 것은 달이 차거나 이지러지는 것과 같아서, 나가면 다시 들어오고, 끝나면 다시 시작되며, 도달하면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명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최초의 단서가 되는 것을 하나로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²³⁾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장의 핵심 내용은 ‘만물은 죽지 않는다’라는 명제에 있다. 만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유기체로서의 생명이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옛 것은 새 것이 되고, 사람은

는 ‘백심’이라는 개념이 없다. 『장자』 「天下」편에서는 전국시대 철학자인 宋鉞과 尹文의 철학을 ‘백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23) 『凡物流形』 제15·24·25호간. “聞之曰, 致精而智, 察智而神, 察神而通(?), [察通(?)]而僉(?), 察僉(?)而困, 察困而復. 是故陳爲新, 人死復爲人, 水復於天. 咸<凡>百物不死如月, 出則又入, 終則又始, 至則又反. 察此言, 起於一端.” []는 잔결된 문자를 보충한 것임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 부호다.

죽으면 다시 사람이 되며, 물은 하늘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듯이, 생명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한다.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현상 또한 영원한 순환을 상징하는 비유다. 그런 점에서 윤회(輪廻)와 전생(轉生)을 특징으로 하는 도가의 ‘물화’(物化) 철학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²⁴⁾

다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람이 된다거나 만물이 죽지 않는 것은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것과 같다는 것은 순환론을 의미하지만, ‘옛 것은 새 것이 된다’는 것은 진보론을 의미한다. 순환론과 진보론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충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다. 하지만 『범물류형』의 저자는 모순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복’(復)자의 의미다. 『범물류형』에는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아마도 『노자』의 ‘복귀’(復歸) 철학과 마찬가지로 궁극적 근원적 실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²⁵⁾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만물은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명찰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단서가 되는 것을 하나로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의 단서란 다른 아닌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만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순환하는 원인에 해당한다.

24) 도가의 ‘물화’ 철학에 관해서는 池田知久(2000), 『老莊思想』(개정판, 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pp. 165-187 참조.

25) 예를 들어 광점초간 『노자』 갑본 제24호간(현행본 제16장)의 “致虛恆也, 守中篤也, 萬物竝作, 居以須復也. 天道貳眞, 各復其根.”은 복귀 철학을 나타내는 예 중의 하나다.

9. 『범물류형』 제7장(제21 · 13A+12B · 22호간)

제7장 이하에서는 만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순환하는 최초의 단서인 ‘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어머니를 낳고 어머니는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일이 있으면 천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일이 없으면 천하에 존재하는 것이 전혀 없게 된다. 눈이 없어도 밝기를 알고, 귀가 없어도 소리를 듣는다. 왜냐 하면 풀과 나무는 일을 얻어서 나고, 짐승은 일을 얻어서 울기 때문이다. 이것을 멀리 펼치면 하늘에 𠄎(?)하고, 이것을 가까이 하면 사람에게 𠄎(?)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명찰하는 것은 몸을 수양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다.”²⁶⁾

이 장의 첫머리에서는 ‘일’에서 만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일’(一)→‘양’(兩)→‘삼’(三)→‘모’(母)→‘결’(結)이라고 해 생성론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만물이 ‘일’로 복귀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장에서는 ‘일’에서 만물[多]로 생성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장은 복귀와 생성이라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 나타난 『범물류형』의 생성론을 보면 누구나 『노자』의 아래 문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26) 『凡物流形』 제21 · 13A+12B · 22호간. “聞之曰，一生兩，兩生三，三生母，母成結。是故有一，天下亡不有_レ。亡一，天下亦亡一有_レ。亡[目]而知明，亡耳而聞聲。草木得之以生，禽獸得之以鳴。遠之_レ𠄎(?)天，近之_レ𠄎(?)人。是故察道，所以修身而治邦家。”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의 기운을 업고 양의 기운을 안고 있는데, 활발히 움직이는 기에 의해 조화를 이루고 있다.²⁷⁾

『범물류형』의 생성론과 관련해, 왕중장은 그 패턴은 『노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²⁸⁾ 그러나 이 견해는 다음의 두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나는 내용의 유사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두 문헌의 성립 시기의 문제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물류형』과 『노자』의 생성론의 유사성은 사실상 밀줄 친 부분만 인정될 뿐, 다음의 세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로 『노자』는 ‘도’가 ‘일’을 낳는다고 해 ‘도’를 ‘일’보다 더 근원적인 존재로 보지만, 『범물류형』은 ‘일’을 근원적인 존재로 봄과 동시에 ‘도’라는 개념과도 구별 없이 사용한다. 둘째로 『노자』는 ‘삼’이 ‘만물’을 낳는다고 하지만, 『범물류형』은 ‘삼’이 ‘어머니’를 낳는다고 해 『노자』에는 없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로 『노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 전체의 조화의 원인으로 ‘기’(氣)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범물류형』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범물류형』의 위의 문장은 전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다른 문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상의 차이를 통해 보면, 『노자』적인 생성론과는 다른 계통의 생성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자』의 위의 문장의 성립 시기 및 『범물류형』과의 선후 관계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현행본 제42장은 광점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고에서 이미 논급했듯이 광점본에는 제42

27) 馬王堆帛書『老子』甲本 제12~13행(현행본 제42장). “[道生一，一生成二，二生三，三生萬物。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 번역은 池田知久(2006), 『老子』, 東京: 東方書店을 참조했다.

28) 王中江(2009)a, p. 49.

장뿐만 아니라 마왕퇴본에 보이는 ‘일’과 관련된 모든 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²⁹⁾ 필자는 이런 점에서 관점본의 단계에서는 ‘일’에 관한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본격화 되지 않았던 것이, 관점본에서 마왕퇴본에 이르는 시기에 ‘일’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새롭게 추가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렇다면 『노자』 제42장이 『범물류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일’이 만물 생성의 궁극적 근원적 실재라는 것을 생성론적으로 제시한 다음에는, 제3장에서 제기한 물음, 즉 ⑭의 “풀과 나무는 무엇을 얻어서 나는가?”라는 물음과 ⑮의 “짐승은 무엇을 얻어서 우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역시 ‘일’이라는 것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여기서서는 또 “눈이 없어도 밝기를 알고, 귀가 없어도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듯이, ‘일’을 획득함으로써 전지전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도를 명찰하는 것은 몸을 수양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듯이, ‘일’과 ‘도’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이다.

10. 『범물류형』 제8장(제22·23·17·19·20호간)

제8장은 전반부에서는 ‘일을 명찰하는 것’, ‘일을 얻는 것’, ‘일을 지키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후반부에서는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일’을 논의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일을 명찰할 수 있으면, 만물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 만약 일을 명찰할 수 없으면, 만물은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 만약 일을 명찰하고자 한다면, 고개를 들어 그것을 보고, 고개를 숙여 그것을 헤아리면 된다. 그러나 먼 곳에서 기준을 찾을 필요는 없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된다. 일을 얻어서 도모

29) 李承律(2011), p. 90.

하는 것은 천하를 병합해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은 천하를 병합해 다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을 잘 지키면 하늘과 땅의 모범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그것을 입으로 씹으면 맛이 나고, 코로 맡으면 냄새가 나며,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눈에 가까이 대면 볼 수 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만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손으로 쥐면 잃어버리고, 손상시키면 말라 시들고, 해치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것은 최초의 단서가 되는 것을 하나로 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³⁰⁾

전반부에서 ‘일을 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명찰하느냐의 여부 가 만물의 득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을 인간과는 동떨어진 먼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 찾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도가의 주체성론의 영향을 매우 깊게 받은 흔적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제5장에서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제7장에서 ‘몸을 닦는 것’을 말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단 ‘자신의 몸’이라고 할 때의 몸이 결코 인류 일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이때 말하는 몸은 군주의 몸을 가리킨다.

‘일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일을 획득해 정치적으로 도모하는 경우와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 논급하고 있지만, 결과는 두 경우 모두 천하를 병합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을 통해 보면 『범물류형』에서 ‘일’을 논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천하 통일’과 ‘통일한 천하의 안정적 지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범물류형』은 전국시대

30) 『凡物流形』 제22·23·17·19·20호간. “聞之曰, 能察一, 則百物不失. 如不能察一, 則百物具失. 如欲察一, 仰而視之, 俯而揆之. 毋遠求度, 於身稽之. 得一[而]圖之, 如并天下而担之. 得一而使之, 若并天下而治之. 守一以爲天地稽. 是故一[阻]之有味, 嗅[之]有臭, 鼓[之]有聲, 近之可見, 操之可操. 握之則失, 敗之則槁, 賊之則滅. 察此言一, 起於一端.”

라는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한 철학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천지의 모범이 된다고 한다. 천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던 두 모델이다. 천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곧 군주가 ‘일’을 지키기만 한다면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 묻고 있는 천지를 만든 존재란 결국 ‘일’인데, 그런 ‘일’이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이듯, ‘일’을 체득한 군주 또한 천지보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 『범물류형』에서 ‘일’을 논의하는 또 하나의 목적은 바로 군주의 절대 권력과 일원적 지배를 정당화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반부에서는 다음의 두 점에 관해 논급한다. 첫째는 ‘일’에 대한 감각적 인식의 문제고, 둘째는 ‘일’에 대한 작위적 인식의 문제다.

전자에 관해서는 ‘일’은 미각·후각·청각·시각·촉각이라는 인간의 다섯 가지 감각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에 관해서는 손으로 쥐거나 깨뜨리거나 해치거나 하면 결국은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 후자의 설명에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철학은 도가의 작위 부정 철학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의 설명에는 철학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있다. 하나는 궁극적 근원적 실재에 대한 인식 가능성의 문제고, 또 하나는 자연과 작위의 의미 변화의 문제다.

전자의 문제와 관련해 『노자』, 『장자』, 『관자』 4편 등과 같은 도가 계통의 문헌에서는 궁극적 근원적 실재인 ‘도’나 ‘일’을 인간의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사물을 사물로서 존재하게 하는 것은 사물이 아닌 존재’인데, ‘도’와 ‘일’은 바로 그런 존재이기에 아무런 작위도 없고 아무런 형체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³¹⁾ 그러나 『범물류형』에서는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고

31) 『莊子』 제22 「知北遊」. “有先天地生者, 物邪. 物物者非物.”; 同 제6 「大宗師」. “夫道, 有情有信, 無爲無形. 可傳而不可受, 可得而不可見.”

있다. 그렇다면 인식론적 측면에서 『범물류형』은 위에서 든 도가 계통의 문헌들과 정반대의 입장에 서있다고 해야 한다.

『범물류형』에서는 왜 ‘일’을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 것일까? 필자는 이것은 도가 철학사에서 ‘도’의 형이하화(形而下化)³²⁾ 현상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고찰하기로 한다.

후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을 손으로 쥐거나 깨뜨리거나 해치면 없어진다고 한 것은 작위를 부정하는 철학으로, 이것 또한 도가 계통의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학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다섯 가지 동작, 즉 씹고 말고 두드리고 가까이 대고 만지는 동작 또한 사실은 작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작위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무위를 통해서만이 ‘도’나 ‘일’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도가 철학자들에 의해 부정됐던 것이다. 그러나 『범물류형』의 저자는 이 또한 작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점 또한 무위에 의한 ‘도’나 ‘일’의 인식을 주장하는 도가 계통의 문헌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11. 『범물류형』 제9장(제20·29·30호간)

이 장에 속하는 갑본 제30호간에는 ‘방’(邦)자 바로 아래에 ‘丿’ 부호가 있다. 이 부호는 통상적으로 편이나 문헌의 종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호를 통해 제9장이 『범물류형』의 마지막 장임을 알 수 있다.

32) ‘도의 형이하화’라는 말은 池田知久(1993), 『中國思想史における「自然」の誕生』, 『中國-社會と文化』 8, 中國社會文化學會, p. 19에 의한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말 한 마디로 중국에는 곤궁에 처하는 일이 없고, 말 한 마디로 많은 사람들을 보유하며, 말 한 마디로 모든 백성의 이익을 얻고, 말 한 마디로 하늘과 땅의 모범이 된다. 그것(일)을 손으로 쥐면 한 줌도 안 될 만큼 작지만, 그것을 펼치면 그 어떤 것에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다. 그것을 크게 하면 천하의 일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작게 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³³⁾

여기서는 ‘말 한 마디’의 중요성과 ‘일’의 위대성에 관해 논급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장에서의 말을 의미한다. 말 한 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정치적 안정, 민인의 획득, 만민의 이익, 천지의 모범이 되는 것과 직결된다고 하고 있듯이, 정치적 레토릭의 중요성과 함께 현실 정치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은 ‘일’의 위대성을 말하는 자리에서도 정치적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점에서 동일한 지향성을 표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일’을 체득함으로써 군주 권력의 절대화와 안정화를 꾀하고 천하 통일이 가능하다고 말한 제8장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 맺음말

이상의 분석을 통해 『범물류형』이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철학적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제1~7장에 의하면 ‘일’은 천지만물의 존재·운동 및 자연계·종교계·인간계의 모든 현상과 질서의 안정·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적 실재다. 이 점은 『노자』·『장자』 등의 ‘일’과 기본

33) 『凡物流形』 제20·29·30호간. “聞之曰, 一言而禾<終>不窮, 一言而有衆, 眾(衍字) 一言而萬民之利, 一言而爲天地稽. 握之不盈握, 敷之亡所容. 大之以知天下, 小之以治邦.”

적으로 같다. 이 점에 관해서는 별고에서 자세히 연구할 예정이다.

그런데 제8장에 의하면 ‘일’은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으며, ‘찰(察)·득(得)·수(守)의 3단계를 거쳐 체득할 수 있다. ‘일’을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노자』·『장자』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이다.

제4~9장에 의하면 군주는 오로지 ‘일’을 체득하는 데 마음을 써야 한다. 이런 군주는 천지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기에 백성이 귀하게 여긴다. ‘일’을 체득할 것을 주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지전능한 성인[현실에서는 군주의 절대 권력과 일원적 지배 및 천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맹자』 「진심하」(盡心下)편의 ‘민귀군경’(民貴君輕)론과는 정반대이며 중앙집권주의적인 철학이다. 전지전능한 군주를 누가 견제하고 누가 비판할 수 있겠는가?

제7장에서는 ‘일’이 있으면 천하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제2장에서는 ‘일’이 만물의 생사를 지배한다고 한다. 그럼 군주가 ‘일’을 체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물음을 통해 우리는 이 언설의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군주가 ‘일’을 체득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 군주가 ‘일’을 체득하면 만민의 생사를 지배하게 된다. 맹자는 이런 중앙집권주의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9장에 의하면 ‘일’에 대한 정치적 레토릭과 활용을 통해 한 나라나 천하 경영의 정치적 효용성을 극대화시키고, 군주 권력을 절대화·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분열돼 있는 국론, 분열돼 있는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범물류형』은 만물의 근원적 실재인 ‘일’을 체득한 전지전능한 군주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국론을 하나로 통합해 분열된 전국시대를 통일시켜 천하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중앙집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 “백성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군주고, 군주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마음이며, 마음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일이다”라고 해, 군주가 ‘일’을 독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결정적인 증거다. 이때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군주의 마음이다. 제8장에서 “일을 명찰하고자 한다면, …… 먼 곳에서 규준을 찾을 필요는 없다. 자기 안에서 그것을 생각하면 된다. 일을 얻어서 도모하는 것은 천하를 병합해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하면, 천하를 병합해 취하는 것은 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기 안에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군주 자신의 마음을 가리키며, 제5장의 마음도 군주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범물류형』의 철학적 특징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이 문헌의 자료적 성격, 철학적 연원과 특징, 소속 학파 등의 문제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는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범물류형』의 자료적 성격에 대해 차오진옌은 초사류 작품이라고 규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 문헌의 전체 형식을 ‘유문무답’(有問無答)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의 고찰에 의하면, 이 문헌은 물음을 제기하는 부분과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이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유문유답’(有問有答)의 형식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범물류형』은 『초사』 『천문』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야 한다.

그럼 『범물류형』을 황로학의 작품으로 보는 왕중장의 설은 어떤가? 확실히 『범물류형』은 우주 생성이나 자연의 기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을 핵심 범주로 삼고 있다. 아마도 이런 점들이 『범물류형』을 황로학의 작품으로 속단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범물류형』을 황로학의 작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시대에 황로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무엇이 황로학 계통의 문헌이고, 무엇이 황로학의 철학적 특징인지 자료적 한계로 인해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검토해야 할 문제는 궁극적 근원적 실재에 대한 인식론적

문제다. 『범물류형』은 궁극적 근원적 실재를 감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래의 도가 계통 문헌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이상에 의하면 『범물류형』은 황로학의 작품이라고 속단할 수 없게 된다.

『범물류형』이 『주역』 「건괘·단전」과 『예기』 「대학」편·「중용」편 같은 유가 계통의 문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가, 유가사상을 핵심으로 한다는 설 또한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들 문헌에 『범물류형』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 하더라도, 「건괘·단전」은 기본적으로 건곤(乾坤) 이원론을 핵심으로 하는 철학이고, 「대학」편과 「중용」편은 ‘일’을 궁극적 근원적 실재로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자료의 성격은 그 자료의 철학적 연원과 특징 및 소속 학파 등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자료적 성격을 위와 같이 규정한 선행 연구에 모두 문제가 있다면, 철학적 연원과 특징 및 소속 학파 등의 문제에 관해 연구한 결과 또한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게 된다. 그러나 왕중장이나 차오핑이 지적했듯이 『범물류형』이 도가의 핵심 철학에서 자양분을 섭취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이 고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게 된다. 『범물류형』과 황로 철학과의 관계의 문제, 도가의 주체성론의 문제, 일군만민(一君萬民)의 일원론적 정치철학과 중앙집권주의의 문제, 유일자의 인식의 문제, ‘도’의 형이하화의 문제, 자연과 작위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고대 철학사에서 『범물류형』의 철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도가 뿐만 아니라 선진시대 제자백가의 ‘일’에 관한 논의 전체를 면밀히 살펴 봐야 한다. 이들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자 료】

『管子』
『廣雅』
『老子』
『備急千金要方』
『呂氏春秋』
『禮記』
『莊子』
『諸病源候論』
『抱朴子』

【논 저】

顧史考(2009), 「上博七《凡物流形》簡序及韻讀小補」, 簡帛 웹페이지, 簡帛, 2009. 2. 23.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994.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편(1985), 『馬王堆漢墓帛書[肆]』, 北京: 文物出版社.
國家文物局古文獻研究室 편(1980), 『馬王堆漢墓帛書[壹]』, 北京: 文物出版社.
大西克也(2010), 「試說“流形”原意」,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편, 『出土文獻』 1, 上海: 中西書局.

馬承源 주편(2008),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研究生讀書會(2010), 「《上博(七)·凡物流形》重編釋文」, 劉釗 주편,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 3,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研究生讀書會(鄒可晶 집필)(2008), 「《上博(七)·凡物流形》重編釋文」,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웹페이지,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 2008. 12. 31.

http://www.gwz.fudan.edu.cn/SrcShow.asp?Src_ID=581.

吳國源(2009), 「《上博(七)凡物流形》零釋」,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 2000, 2009. 1. 1.

<http://www.confucius2000.com/qhjb/fwlx5.htm>.

- 王中江(2010), 「『凡物流形』의 “貴君”、“貴心”和“貴一”」,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1, <清華大學學報>編輯部.
- _____(2009)a, 「『凡物流形』의 宇宙觀、自然觀和政治哲學-圍繞“一”而展開的探究并兼及學派歸屬」, 『哲學研究』 2009-6, 中國社會科學院哲學研究所.
- _____(2009)b, 「『凡物流形』編聯新見」, 簡帛 웹페이지, 簡帛, 2009. 3. 3.
http://www.bsm.org.cn/show_article.php?id=998.
- 廖名春(2008), 「『凡物流形』校讀零筭(一)」,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 2000, 2008. 12. 31.
<http://www.confucius2000.com/qhjb/fwlx3.htm>.
- 李承律(2011), 「出土資料の思想編年をめぐる諸問題-上博楚簡『凡物流形』を中心にして-」, 谷中信一 編, 『出土資料と漢字文化圏』, 東京: 汲古書院.
- 李銳(2009), 「『凡物流形』釋讀筭記(再讀)(重訂版)」,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2000, 2009. 1. 3.
<http://www.confucius2000.com/admin/list.asp?id=3885>.
- _____(2008), 「『凡物流形』釋文新編(稿)」, Confucius2000 웹페이지, Confucius 2000, 2008. 12. 31.
<http://www.confucius2000.com/qhjb/fwlx1.htm>.
- 張岱年(2005), 『中國哲學大綱』,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 赤塚忠(1987), 「中國古代の思想家たちの「一」の探究」, 『中國古代思想史研究』, 赤塚忠著作集 제2권, 東京: 研文社.
- 曹峰(2010), 「上博楚簡『凡物流形』의 文體結構與思想特徵」, 『清華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0-1, <清華大學學報>編輯部.
- 池田知久(2006), 『老子』, 東京: 東方書店.
- _____(2000), 『老莊思想』(개정판), 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 _____(1993), 「中國思想史における「自然」の誕生」, 『中國-社會と文化』 8, 中國社會文化學會.
- 秦樺林(2009), 「從楚簡『凡物流形』看『彖傳』的成書年代」, 『周易研究』 2009-5, 山東大學中國周易學會.
- 荆門市博物館 編(1998),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원고 접수일: 2016년 4월 1일

심사 완료일: 2016년 5월 2일

게재 확정일: 2016년 5월 3일

ABSTRACT

The *Fan Wu Liu Xing* and its Intellectual
Discussion about the One

Yi, Seungryul*

This article presents a translation of the newly uncovered bamboo text, the *Fan Wu Liu Xing* (FW), with some discussions on the nature of the text. The FW proposes the One as the primordial entity which can stabilize and maintain the existence and movement of all nature as well as all the phenomena and orders in the nature, religion and humanity. The acquisition of the One makes possible the unification of the world and, moreover, its stable control, leading eventually to the most valuable existence of the world as the model of Heaven and Earth. The FW further argues that the political rhetoric and utilization of the One maximize the political efficiency for the ruling of one state or the world.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Dankook University